

김명근 기자의 게임 월드

1월 출시 앞둔 2018년 기대작들

삼성전자, 2018년형 '갤럭시A8·A8+'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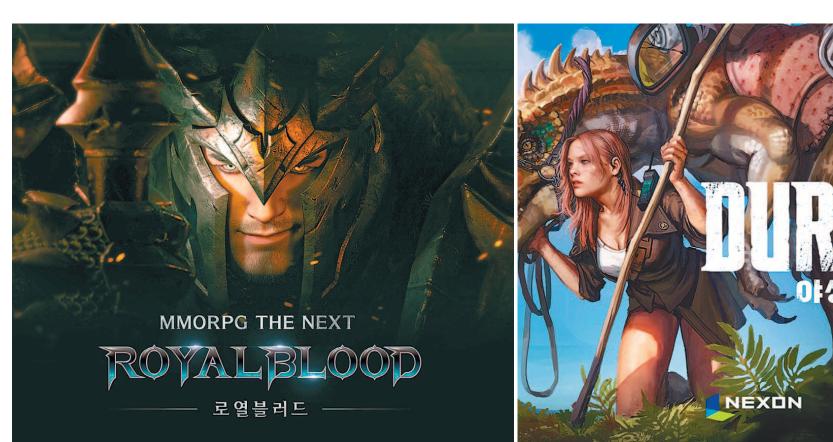
첫 전면 듀얼카메라 탑재…1월 출시



삼성전자는 2018년형 '갤럭시A8'(사진)과 '갤 럭시A8+'를 19일 공개 했다. 인피니티 디스플레 이에 셀피 기능을 극대화 한 것이 특징이다. 내년 1월 초 출시 예정이다.

두 제품 모두 갤럭시 스 마트폰 최초로 전면 듀얼 카메리를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셀피 촬영이 가능하다. F1.9 렌 즈에 각각 1600만,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 해 인물 위주로 촬영할 지 또는 배경과 함께 촬영 할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각각 5.6인치, 6.0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A8과 갤럭 시A8+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 몰입 감은 높이고 베젤(테두리)은 최소화했다. 한 손으 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립감도 갖췄다.

갤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기 능과 서비스도 대거 지원한다. 갤럭시A 시리즈 최초로 가상현실기기 '기어 VR'을 지원하며, I P68 등급의 방수·방진,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 성 페이'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다음 달 출시를 앞둔 게임빌의 '로열블러드'(왼쪽)와 넥슨의 '야생의 땅: 듀랑고'는 국내외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대작이다.

새해 첫 전쟁 '모바일RPG 3파전' 개봉박두

게임빌 야심작 '로열블러드' 1월12일 출격 펄어비스 IP 기반 '검은사막 모바일' 눈길 넥슨, 기대작 '야생의 땅:듀랑고' 19일 예약



게임업계를 후끈 달군 모바일 대작의 러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

연말 '테라M'과 '오버히트'는 높은 인기를 누리며 그동안 '리니지' 형제가 장 악하던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 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기대작들이 2018년 무 술년 초부터 등장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 고 있다. 특히 1월에 등장하는 3개의 게임은 저 마다 국내외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대작들

이다. 주인공은 '로열블러드'와 '검은사막모바 일', 그리고 '야생의 땅:듀량고'다.

먼저 게임빌이 글로벌 원빌드로 준비 중인 시도 준비하고 있다. 로열블러드를 1월12일 국내 출시한다. 최근 시 작한 사전 예약이 가볍게 신청자 50만 명을 돌 파해 빠르게 100만 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로열블러드는 100명의 대규모 개발인력을 투 입해 2년 반 이상 제작한 블록버스터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돌발 임무인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과 '태세 전환'을 활용 한 클래스별 역할 플레이, 수동 컨트롤로 협력 을 유도하는 '보스 레이드' 등이 특징이다. 2주마다 시즌제로 펼쳐지는 100 대 100의 대규 모 진영간전투(RvR)와 최대 500명의 대규모 길드 시스템도 재미를 더한다. 게임빌은 로열

블러드가 해외전시회 등에서 주목받는 등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 내년 3월을 목표로 글로벌 출

펄어비스의 '검은사막모바일'도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리니지 형제를 필두 로 시장을 장악한 인기 지적재산권(IP) 기반 게임의 강세를 이을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검은사막모바일은 PC온라인게임 '검은사막' 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다. 펄어비 스의 자체 엔진으로 개발해 원작의 수준 높은 그래픽과 방대한 콘텐츠를 담아냈다. 사전 예 약 3주 만에 신청자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유저들의 기대감이 높다. 원작 매출의 7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 만큼 모바일버 전의 해외 성과도 기대된다. 펄어비스는 한국

에 이어 글로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WHAT! STUDIO

사진제공 | 게임빌·펄어비스

1월 출시를 앞둔 '야생의 땅:듀랑고'는 넥슨 의 2018년 첫 기대작이다. 19일부터 사전예약 을 시작했다.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웅전' 을 개발한 이은석 디렉터의 신작으로 오픈월드 샌드박스 MMORPG다. 알 수 없는 사고로 공 룡 시대로 넘어온 유저들이 생존을 위해 거친 환경을 개척하고 가상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존과 탐험, 채집, 사 냥, 정착, 사회건설 등 기존 모바일게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미를 준다.

넥슨은 사전예약에 참여한 유저에게 론칭 후 사용 가능한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 '2018년 ICT 트렌드' 출간

KT는 내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흐 름을 짚어보는 '2018 한국을 이끄는 10가지 IC T 트렌드'를 21일 출간한다. 글로벌 ICT 산업계 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 분석해 대중의 흥 미를 높이고, 최신 트렌드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KT경제경영연구 소가 선정한 올해 ICT 트렌드 주제는 5G와 스 마트 시티&스마트 그리드, 스마트카, 블록체 인, 스마트 농업, 실감형 미디어, 양자기술, 인 공지능(AI) 어시스턴트, 디지털 트윈, O4O(On line for Offline) 등 10가지다.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컴퓨터와 어떤 해킹도 뚫을 수 없 는 양자통신에 대해 설명하고, 공장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디지털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O4O에선 아마 존고와 아마존북스 등 온라인 노하우를 기반으 로 한 오프라인 매장의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전국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배틀그라운드' 엑스박스원 100만장 판매

인기게임 '배틀그라운드'가 콘솔게임 부문에서 도 흥행 청신호를 켰다. 펍지는 배틀그라운드의 엑스박스원 버전이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했다 고 밝혔다. 게임 프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인 지 이틀 만에 달성한 기록으로, 콘솔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이다. 펍지는 엑스박스원 게임 프리뷰 프로그램 출시를 기념해 '트랙슈트 팩'을 22일부터 25일 까지 선보인다. 김창한 펍지 대표는 "스팀 유료 테스트 버전과 마찬가지로 엑스박스원 게임 프 리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을 보여준 팬들 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 vs 중국, 양국 e스포츠 간판스타 격돌 하스스톤·LoL 등 5개 종목, 中 창저우 개막



의 e스포츠 선 수들이 맞붙는 혔다.

한국e스포

츠협회는 양국 정식 협단체와 국가체육회가 함께 주관하는 '2017 한중 e스포츠 국가대항

한국과 중국 전'(사진)을 중국 창저우 다이노소어 파크 시 행하고, 23일에는 'CS:GO', '피파온라인3', 어터에서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

> 포츠를 통한 스포츠 외교 확대와 양국 간의 e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식 국가대항전이다.

22일에는 '하스스톤'과 '도타2' 종목을 진

'리그오브레전드' 경기가 열린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각 종목을 대표하는 올해로 2회를 맞은 한중 국가대항전은 e스 선수들로 22명의 대표팀을 선발했다. 하스 스톤은 김의강, 목진혁, 신명수가 출전하고, 도타2는 팀 팡골리어, CS:GO는 MVP PK, 피파온라인3는 강성훈, 김관형, 신보석이 참

리그오브레전드는 2017 대통령배 KeG 전 국결선에서 준우승한 KeG 경기도 팀이 출전 한다. 5개 종목 세트스코어를 합산해 최종 우 승 국가를 결정한다. 세트 스코어가 같은 경 우엔 3개 종목 이상 승리한 국가가 우승을 차

대회 총 상금은 6만7000 달러로 국가대항 전 의미를 살려 각 팀 및 선수 이름으로 각 국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홍대수제핫도그' 없어서 못 팔 지경

"사계절 뜨는 핫도그, 핫도그의 대표브랜드로 대박창업의 꿈은 이루어진다"

"어떤 핫도그와 비교해도 자신있습니다"



태생부터 다른 홍대수제핫도그 "이런 핫도그 없었다" 주문쇄도

요즘 핫도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듯 높다. 창업시장에 서도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핫도그의 흥행돌풍 이유를 들자면 부담없는 가격으로 든든 한 끼니와 간식거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핫도그는 가격대비 맛도 좋아 분식을 몰아내고 길거리 음 식의 새로운 왕좌로 등극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양한 핫도 그중에서도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홍대수제핫도그가 단 연 돋보인다. 일반적인 핫도그와는 달리 홍대수제핫도그의 인기비결은 다양한 차별화를 경쟁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일단 외형 부터가 톡톡 튄다. 겉은 바삭한 페스츄리로 돌돌 말아 꽈배기를 연상시키고 회오리를 따라 돌려서 먹는 재 미도 남다르다고 한다. 보통의 핫도그는 기름에 튀겨 느끼 하지만 홍대수제핫도그는 전용 구이기로 굽기 때문에 건강 식이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특히 젊은 층에서 호응 이 아주 좋아 날개 돋친듯 팔려나가는 이유이다. 홍대수제 핫도그는 그 크기가 무려 20cm의 빅사이즈로 한 끼 식사로 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청소년 및 어린이 영양간식과 어 른들의 술안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대학가에서 시작한 홍대수제핫도그는 태생부터가 전혀 다른 특별한 핫도그로 높이고 있다.

인건비 걱정 NO, 임대료 걱정 NO 마음편하게 혼자 꾸려갈 수 있는 사업

홍대수제핫도그에서는 지역 물류대리점을 모집하고 있 다. 창업비는 1,290만원으로 본사에서 상권분석을 통해 10 개 점포를 직접 섭외해 창업자에게 인계해주는 방식으로 따로 영업할 필요가 없다. 영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 본사가 지정해주는 20개 점포는 학교 앞 분식점, 테이크아웃매장, pc방, 편의점, 커피숍, 찜질방, 휴게소, 공원 매점, 호프집, 포장마차, 푸드트럭, 야시장, 유원지 등이 대 상이다. 일단 시작하면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입점 문의가 절로 들어온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실제로 홍대수제핫도 그 부산총판을 운영중인 진성엽씨는 의심반 기대반으로 1 개 지역에서 시작해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홍대수제핫도그 의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 높은 매출과 수입에 반해 지금은 부산전체를 운영하고 있다. 진성엽 대리점주의 경우처럼 처 음에는 10개 점포로 시작 되지만 30~40개로 늘어나는 것 은 시간문제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개인의 노력여하에

유행을 타지 않고 한결같은 맛의 특별함으로 그 인지도를 따라 취급점포를 늘려나갈 경우 지속적인 고수익이 보장된 다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본사는 지역 독점권을 부여하 므로 입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판권을 맡고 있는 창업자가 사업을 도맡아 운영하게 되는 손 쉬운 사업이다. 최근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요즘 같이 인건비로 힘든 시기에 1인 창업으로 홍대수제핫도그 지역 물류 대리점 사 업이 안성맞춤이다. 본사가 다 알아서 판매점포 섭외부터 기기설치와 A/S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 은퇴자, 주 부, 투잡으로 안성맞춤인 사업이다. 홍대수제핫도그사업은 유행을 타지 않고 1년 내내 꾸준한 안정된 매출로 힘든 시 기 창업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인기 비결? 특별한 맛과 모양. 유행타지 않는 길거리 음식의 최강자"

대리점 창업문의 1600-1524 www.hdhotdog.com

NAVER 홍대수제핫도그 검색